



목포시 산정동 일대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중인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목포시는 기념관이 완공되면 매년 10만명의 천주교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 산정동 일대 천주교 성지 된다

한국 천주교의 '못자리'로 불리는 충청도 당진 솔피성지, 서산 해미성지, 진천 배티성지, 제천 배론성지, 괴산 연풍성지 등에는 매년 천주교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당 자치단체는 충청 일대에 몰려 있는 이들 천주교 성지를 순례길로 가꿔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포도 마찬가지다. 국내 첫 '레지오 마리에' 발상지인 점을 내세워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을 비롯해, 성 마리아 기념 대성당 등을 짓고 천주교 성지 순례 코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는 '성모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으로, 선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천주교 평신도들로 구성된 신앙단체다. 목포가 구상중인 '성지 순례 메카 조성

152억 들여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10월 완공  
매년 10만명 이상 천주교 신자 발길 이어질 듯

사업'의 핵심인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다. 1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 구 가톨릭병원 일대 건립되는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은 지난해 4월 착공, 현재 80%의 공정률로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8153㎡) 규모로, 총사업비는 국비(25억5000만원)·도비(10억 2000만원)·시비(15억3000만원) 등 152억원이 투입됐다. 목포는 지난 1953년 국내에 도입된 레지오 마리에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으로,

레지오 마리에의 발상지라는 점에서 550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지역이다. 특히 전국 각 성당마다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는 신자들만 55만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기념관 완공 이후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목포시 분석이다. 담당, 산정동 성당측은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조성 이후 방문객 수를 2018년 11만8000명, 2019년 19만4500명 등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목포시도 이같은 점을 감안, 170억원을

들여 산정동 일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목포역교~직업훈련원간 진입도로(길이 86m·폭 12m) 개설 공사에 들어가는 등 주변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등록문화재 제513호) 건물에 대한 내·외부 보수공사 및 원형 복원공사도 마무리했다. 구 교구청 건물은 가톨릭 목포성지 사업과 연계, 천주교 역사문화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목포시는 천주교총과 공동으로 산정동 구 가톨릭병원 일대 부지 2만9279㎡를 가톨릭 성지 조성키로 하고 462억원(천주교 241억, 국·도비 등 221억)을 들여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성 마리아 기념 대성당, 성직자동 등을 건립 중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 초교 3곳·중 2곳에 학교 북카페 설치

목포, 1억5000만원 지원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학생들이 책과 친숙하게 할 수 없을까. 목포시가 올 해 처음으로 '학교 북카페 설치사업'을 지원키로 한 데는 지역 학생들의 독서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목포시는 올 해 목포시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을 선정, 1억 5000만원을 들여 북카페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지원청이 심사를 거쳐 학교를

선정하면 목포시는 북카페 설치사업비와 북카페를 활용한 독서프로그램·동아리 운영사업비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목포시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 7~8월 공사를 마무리짓고 2학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북카페가 학생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날마다 책 읽는 습관적 독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목포시는 기대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덕인중이 자체 조성한 북카페. 목포시와 교육지원청은 다른 초·중학교에도 북카페를 확대키로 했다. <목포시 제공>

## 세금 체납액 2010년 이후 첫 100억대 이하로

4월말 현재 90억대

매년 징수 실적 증가

목포시의 세금 체납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대 이하로 줄었다. 16일 목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의 세금 체납액은 지난해 110억 원대에서 지난 4월말 현재 90억 원대로 줄었다. 최근 3년간 고질 체납액은 2014년 117억5200만원, 2015년 118억3500만원,

2016년 113억3300만원, 2017년 4월말 기준 90억6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목포시는 고질적 체납을 57억6400만원으로 파악하는 한편, 부도 및 경영난 26억3500만원, 행정불명 3억6600만원, 소송계류 78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목포시의 징수 실적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징수 현황은 2014년 35억5000만원, 2015년 57억700만원, 2016년 64억9400만원으로 지난 4월말 현재 징수실적도 32억원 규모다. /목포=임영준기자 lyc@kwangju.co.kr

## 일제 강점기 화재 감시탑 '불종대' 특화 공간 조성

2억 들여 목원동 일대 관광화

일제 강점기 화재 감시탑 기능을 했던 '불종대'를 활용한 특화 공간이 조성된다. '불종대'는 일제 강점기 주변 화재를 감시하기 위해 세워진 철탑(일종의 망루)으로, 당시 북교초교와 구 신안군청 건물(현 춘광식당 자리)에 설치됐었다. 철탑에는 화재를 알리는 종, 펌프식으로 물을 뿜어내는 재래식 소화기가 비치됐고 주변에는 북교와 남교 등 다리 2개가 있어 일대에 '쌍교' 장터가 섰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따라 예전 목원동 일대에 세워졌던 불종대를 상징하는 특화공간을 조성,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목포시는 우선, 2억원을 들여 목원동의 지역특성·지역정서·주변경관 등을 반영한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예술적인 특화공간으로 꾸며나가기로 했다. 단순 조형물 대신, 시민·관광객이 교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를 반영키로 했다.



목포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진행하는 목원동 일대. 저수조 팻말이 서있는 곳은 예전 불종대가 있던 지점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창욱 목포시 도시발전 사업단장은 "목원동 문화와 역사성이 담긴 상징 조형

물을 담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교통질서 지킴시다" 목포시는 최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목포경찰서, 목포교육지원청 합동으로 연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 2017년 필리핀 주니어 체험 영어 캠프

#### 모집 안내

**캠프기간** 2017년 7월 30일(일) ~ 8월 26일(토)

**모집연령**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캠프장소** 마닐라 일라방 리조트 전용 동

- 24시간 상주 현지 담임 선생님
- 맞춤형 멘토맨 수업, 생활 영어 체험, 현장 영어 공부
-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영어 캠프 선생님
- 독특하고 다양한 액티비티

상담 문의

**070.8286.8726**

**epoweredu**

블로그 : <http://blog.daum.net/e.power>

## 24/35PY 분양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 온세계 아이조움

### 분양 전환 계약금 500만원

대출 70% OK!

이자만 납부 OK!

청약 통장 NO!

즉시 입주 OK!

**24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35PY**

- 방 3
- 화장실 2
- 주방
- 거실

분양문의 (062) **610-9232**